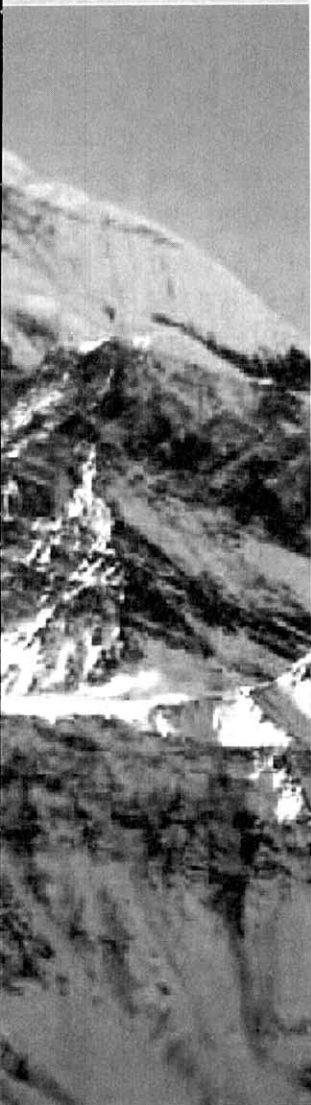


# 겨울,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이번 겨울, 다시 히말라야를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다시 쳐다보곤 한다. 그들의 머릿속에 에베레스트는 아니더라도 까마득히 높은 설산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는 장면이 얼른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말을 보탠다.

“아니, 그저 트레킹을 갔다 온 거예요.”

히말라야 트레킹은 전문 등반이 아니다.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꾸준히 올랐거나 지리산 종주를 할 정도의 체력을 지닌 이라면 대개 다 감당할 수 있다. 물론 보통 산행보다는 시간도 꽤 걸리고, 이것저것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고산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 이 역시 산 밑자락부터 천천히 고도를 높여가면서 적당한 적응 시간을 갖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짐이 문제였다. 한겨울 산행이라 아무래도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았다. 짐을 꾸릴 때만 해도 지난 두 차례의 경험으로 미루어 아주 힘든 코스에서나 남의 손을 빌리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짐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데 벌써 눈앞이 캄캄해졌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첨단 정보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작가로서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몸을 망가뜨리는지, 공항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에 이미 푹푹히 깨달을 수 있었다.

결국 현지에 가자마자 포터(짐꾼)를 고용했다. 그는 서른 중반의 나이로 원래 직업은 페인트 공이었다. 그렇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산을 오른다고 했다. 칠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하루에 4백 루피, 우리 돈으로 7천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는 훌륭한 짐꾼이었다. 보름 가까이 산을 오르는 동안 한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를 부린 적이 없었다. 등에는 늘 자기의 키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앞장서서 걸었는데, 그는 짐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길 안내자 겸 말동무로서도 더 없이 훌륭했다. 그가 없었다면, 히말라야가 아무리 아름답기로서니 이제 와 되새기는 추억은 꽤나 적막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그에게는 한 가지 역할이 더 부여되었다. 고도가 어느 정도 높아

지면서, 나는 아예 그를 처음부터 그런 역할로 계약한 것처럼 '부러먹기' 시작한 것이다.

“싼다, 워터!”

“싼다, 핫 워터 앤 밀크 티 원 컵! 스몰루다.”

“싼다, 투모로 모닝에도 에잇 오클락에 스타트야. 당연히 핫 밀크 티하고 프라이드 에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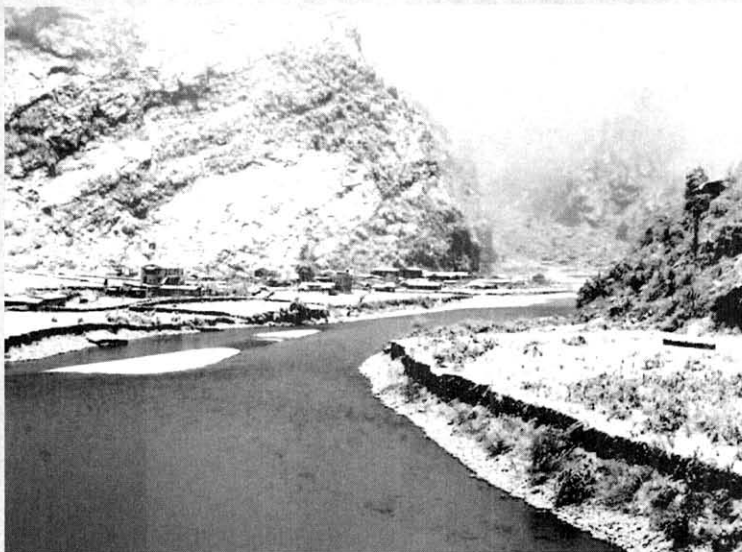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 녹초가 된 나는 짐을 내려놓기 무섭게 그를 부른다. 그러면 그는 제 이마의 땀도 닦을 새 없이 부리나케 게스트하우스 부엌으로 달려가곤 했다. 어떤 때는 내 어깨도 주물러 주었고, 어떤 때는 담배를 사러 चु고 깜깜한 밤길을 달려갔다 와야 했다. 그는 참으로 충직한 ‘하인’이었다. 고국에서야 공식적으로 ‘일용잡급직’에 포함되는 가난한 작가 처지에서 언제 그런 호사를 누리 보겠는가. 그래도 나는 보고 들은 바는 있어 그를 위해 이따금 선심을 베풀 줄도 알았다. 초콜릿 한 개 사탕 한 알을 건네주는 마치 그의 집에 김장 배추 한 접이라도 들여와 준 것처럼 으쓱한 기분에 젓기도 했다.

안나푸르나를 품에 안은 채 한 바퀴 크게 도는 이번 산행의 최대 난관은 해발 고도 5천 4백 미터의 쏘를라를 넘는 것이었다. 그 정도 고도에서는 한 발짝 떼는 데에도 숨이 턱에 받치곤 했다. 젓 먹던 힘까지 다 쓰고서야 정상에 설 수 있었다. 문제는 하산 길이었다. 끝없는 수직 벼랑 같았다. 도중에 쉴 곳 하나 없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발 길을 1,600미터나 곧장 내리 달아야 했다. 정상 부근에서 만난 세찬 바람 때문에 몸은 이미 두어 번 데친 파김치 꼴이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등이며 가슴에 담이 걸린 듯 찾아드는 통증과 한국에서 갖고 온 위장병이 때만 노렸다는 듯 지친 내 몸을 덮쳤다. 얼마 가지도 못해 나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등에 멘 배낭이 집 한 채처럼 무거웠다. 오 분을 채 못 가고 멈춰 서서는, 해수병 환자처럼 받은 숨을 내뱉어야 했다. 모든 게 귀찮아졌다. 살고 죽는 게 무슨 대수랴 싶기까지 했다. 그냥 저 까마득한 눈발 골짜기로 굴러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다.

그때, 내 곁에 싨다가 있었다.

“싼다, 나 죽겠어. 레스트!”

그는 언제부터인가 내 배낭도 지고 있었다. 그가 숨을 헉헉 토해내는 내 앞에 물병을 내밀었다. 그런 다음 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눈발에 쪼그리고 앉아 묵묵히 기다렸다. 도대체 몇 십 번이나 그런 ‘레스트’가 거듭되었을까.



해가 거의 저물 무렵, 가까스로 목 적지 마을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그 날 밤, 그리고 그 이튿날, 나는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싨다는 수시로 내 방에 들어와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았고, 이것저것 잔심부름으로 나를 거들었다.

만일 그가 내 곁에 없었다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주인이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신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내 하인이었다.

저녁 식사 때였다. 나는 죽도록 고생한 그를 위해 비싼 음식을 시켜주

었다. 그는 꽤나 놀란 눈치였다. 아마 그렇게 비싼 음식을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듯 보였다. 나는 흐뭇했고, 내 몫마저 적당히 털어 주었다. 마치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반가의 마님처럼.

식사가 끝났다. 물을 마셨다. 잠시 후 그가 손을 뻗더니 내 물병을 집어 들었다. 순간, 나는 불쾌했다. 내가 입을 대고 먹는 물병인데…….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물을 마셨다. 화가 났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 그와 내가 엄연히 다른 위치에서 있는 존재라는 걸 되새겼다.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한번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자, 물을 마신 뒤 물병을 아예 숨기다시피 꼭 쥐고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더없이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웠다. 힘든 하산 길에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생각하더니, 신간이 편해지니까 금세 속에 있던 다른 짐승을 꺼낸 셈이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이며 태도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저기서 제법 보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나는 은근히 내 알량한 경력을 저울에 올려놓았다. 만일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이것저것 밀린 빚 좀 갚아야지, 혼자 속으로 열심히 셈평도 해 보았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때 속으로는 또 얼마나 불끈했을까.

나라는 인간이 그만큼 걸 다르고 속 다른 위인이었다. 조금만 우월한 위치에 있어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과시하고(그것도 마치 안 그런 척 얼굴을 꾸며서!), 만일 제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돌아올 것 같으면 십 년 한 마음공부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심정으로 달려드는(물론 그것도 안 그런 척 얼굴을 꾸며서!)…….

이런 인간이라면 히말라야를 열 번 올라도 애시 당초 마음을 닦기는 그런 것이었다.

네팔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따금 그 황홀했던 산길이 꿈인 듯 떠오른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싶은 쏘롱라는 더없이 삼삼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온몸 구석구석에 쯤이 쑤신다. 이번 봄에도 어떻게든 한번 다시 갈 기회를 만들 수 없을까…….

퍼뜩 정신을 차린다. 아, 사진!

돌아오자마자 사진을 보내 주마고 철석같이 다짐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 미루다가 나중에는 아예 약속 자체가 없었던 듯 잊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인간이 제대로 되든 말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장 내일, 사진을 뽑아서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인간이고 뭐고 거창한 논리를 꾸며도 꾸밀 수 있는 것이다.

환하게 웃는, 나보다 시커먼 그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동심 떠오른다.



나의 내면을 되돌아 보게 해 준 짐꾼 산타

### 김남일 (소설가)

- 1957년 경기 수원 출생. ·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단편 「베리」로 등단.
- 장편소설 「청년일기」「국경」(전 7권), 작품집 「일과 밥과 자유」「친하무적」「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동화 「떠돌이 꽃의 여행」과 평전 「김상진」을 집필.
-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계간 「실천문학」 주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장 역임.